

문열고 에어컨 땡땡... 단속만 하면 뭐하나

올 여름 전력난 속 정부 '에너지 사용제한조치' 실패

광주·전남 지난해 과태료 부과 한건도 없고 경고만

4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충장로 메가박스 앞 의류 매장 대부분은 문을 활짝 열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실내에 켜놓은 에어컨 바람 탓에 매장 앞을 지날 때에는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닥치기 전부터 전력 경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에 비상이 걸렸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냉방기를 켜놓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장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1만907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81곳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개문냉방영업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상가 밀집 지역인 충장로 등을 중심으로 3007개소 중 54개소에 경고장을 발부했다. 서구는 4154개소 중 27개소에, 남구는

3564개소 중 62개소에 경고장을 발부했다. 북구의 경우 4077개소 중 29개소, 광산구는 4275개소 중 9개소가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을 경고 받았다.

전남도도 비슷하다. 22개 시·군과 공동으로 모두 1만5051개소 사업장을 점검했지만 과태료 처분을 내린 곳은 한건도 없었다.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1회 위반시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 4회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겨울 실시한 '개문난방온도' 중 54개소에 경고장을 발부했다. 서로서로 적발 시설은 많지 않았다.

광주의 경우 1만1583개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161개소를 경고했을 뿐이다. 남구가 84개소로 가장 많았고, 동구 73개소, 북구 4개소 등이다. 이 때 과태료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전남도도 3888개소를 점검, 구두 및 서면 경고로 끝났다. 전국적으로 전력 경보가 발령됐을 때 난방기를 차례로 운행·중단하도록 한 지침을 어긴 민간 건물은 한곳도 적발되지 않았다.

전력 대책에 적극 협조해 이뤄진 것 이라기보다는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 사업장을 대

상으로 단속을 진행하다 보니 한두 명이 단속에 나가면 인근 상점에 소문이 퍼져 자제적으로 문을 닫는 등 조치를 취해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3기 정지로 인해 올 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면서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Tonnage of Oil Equivalent·석유환산톤·백화점 등이 해당) 이상 대형건물(476개)의 냉방온도를 26도로 제한했던 것을 올해는 계약전력 100kW 이상(3~4층 건물) 6만8000개소로 확대하는 등의 전력수급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은륜 반기는 셋노란 금계국

4일 오후 30도를 넘는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셋노란 금계국으로 뒤덮인 광주 광산구 산월동 영산강변을 경쾌하게 달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수능 6월 모의평가 오늘 시행 광주·전남 4만2천여명 응시

6월 모의평가가 5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300여 고교와 학원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이 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을 앞두고 6월과 9월 두차례 실시하는 공식 모의평가로, 수험생 수준에 따라 국어·수학·영어 등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나뉘어 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광주 2만3689명·전남 1만9281명 등 전국에서 64만5960명(재학생 57만2577

명, 졸업생 7만3383명)이다.

광주·전남지역 수험생들의 과목별 A/B형 지원율은 국어는 A형(광주 53.5%, 전남 52.1%)이 B형(46.5%, 47.9%)보다 조금 많지만 지난 3·4월 두차례 실시하는 공식 모의평가로, 수험생 수준에 따라 국어·수학·영어 등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나뉘어 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광주 2만3689명·전남 1만9281명 등 전국에서 64만5960명(재학생 57만2577

고, 전남은 수학 A형 64%(58.5%, 58.9%), B형 36%(41.5%, 41.1%), 영어 A형 18.5%(11.6%, 11.3%), B형 81.5%(88.4%, 88.7%)가 응시했다.

전국적으로는 ▲국어 A형 32만3695명(50.4%), B형 31만8205명(49.6%) ▲수학 A형 41만4910명(65.3%), B형 22만342명(34.7%) ▲영어 A형 11만3568명(17.7%), B형 52만9280명(82.3%)이다. 사회탐구 35만2125명, 과학탐구 24만8735명, 직업탐구 3만8962명, 제2외국어/한문 5만4886명이 각각 지원했다.

결과는 이달 27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한다. 성적표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

/*박정렬기자 jwpark@kwangju.co.kr

“조선대 이사진 빨리 구성해야”

서재홍 총장 담화문 발표

조선대의 이사 선임이 수개월간 미뤄지면서 학내의 비난이 거세지자 서재홍 총장이 제2기 이사진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조선대 이사들이 제1기 정이사 임기가 끝난 지 5개월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2기 정이사를 선임하지 않으면서 학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사진 구성을 촉구하며 이 대학 교수가 15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학생들과 대학노조도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조선대 역사상 최초

로 학내단위 구조조정을 매듭지는 서재홍 총장은 3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사진 구성이 지연되면서 차라리 임시이사 체제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일부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구성원들은 대학 미래를 위해 이사진 구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 이사회는 박대성 법인 사무처장을 겸직했다. 이사회는 알박 사무처장을 조선이공대 총무처장으로 발령내고 정병수 조선이공대 총무처장을 법인 사무처장으로 선임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8분** **해질녘 03시 55분**
해질 19시 44분 **달일 16시 41분**

불볕 더위
맑은 가운데 한때 소나기 오는 곳 있겠다.

지역	구름	기온
광주	맑음	19/31°C
목포	맑음	17/27°C
여수	맑음	18/25°C
나주	맑음	17/30°C
완도	맑음	17/28°C
구례	구름조금	16/31°C
강진	맑음	16/29°C
해남	맑음	15/30°C
장흥	맑음	16/29°C
순천	맑음	15/29°C
영광	맑음	17/29°C
진도	맑음	15/29°C
전주	맑음	18/31°C
군산	맑음	16/28°C
남원	맑음	16/31°C
옥산도	맑음	14/24°C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남동 0.5m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남동 0.5m 0.5~1.0m

경고 매우높음 보통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6(목)	7(금)	8(토)	9(일)	10(월)	11(화)
날씨						
최저/최고	20/30	12/31	19/30	20/30	20/27	20/25

75세 이상 부분 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내달부터...120만원 중 60만원만 본인 부담

다음달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이 부분틀니를 맞출 때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전체 가격의 20~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처리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기존 완전틀니에서 부분틀니까지 확대된다.

부분틀니 비용의 본인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마찬가지로 50%로 결정됐다.

질반만 환자가 내면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급여를 지급한다. 보통 위 또는 아래 잇몸 하나에 씌우는 부분틀니 가격이 약 120만원인만큼, 다음달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연합뉴스

백내장·항문 등 7가지

종합병원서 수술편

내달부터 '진료비정찰제'

내달부터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에서도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제왕절개 등 7가지 수술의 진료비에 '정찰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산부인과는 의료기술의 질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보상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항의차원에서 다음달 1일부터 1주일간 복강경 수술을 거부하기로 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포괄수가제란 일련의 치료행위를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 처치의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일괄적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입원 진료비 정찰제'이다.

/*연합뉴스

첫날부터 짹~한 신나는 제주여행
광주 출·도착 제주도 2박3일 단하루 출발

왕복 및 일정 포함 요금
6월14일 출발!
[금요일]

147,000원

6월 14일 (금요일 출발) 단 하루 147,000원(6인 1실~) 광주 출도착 상품

첫날 광주역 출발, 목포역 도착, 제주항 도착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 도개비도로(신비의 도로)
수목원 테마파크(아이스뮤지엄)

둘째날 한라산 자연관광(성판악 휴게소, 숲속의 터널 등 516도로경유)
쇠소깍/새섬과 새연교/천지연폭포/석부작테마공원
/약천사/올레8코스 1시간 체험

셋째날 선녀와 나무꾼/ 승마체험/성음민속마을
섬지코지/종달리 해안도로 경유 해녀촌 및 농수산물 쇼핑
광주 송정리역 도착

- 불포함사항 : 기사 가이드팁(1인 3일 1만원), 석식 2회
- 현지직불관광 : 산방산유람선(15,000원)

한일카웨이 대리점, 씨월드고속웨이 대리점
남해고속 장흥해운 취급점
제주배닷컴_www.jejube.com

NAVER 제주배닷컴 검색
여행 상담 ☎ 1644-2261

추억과 낭만이 있는
선상 제주여행

서해 운행 및 편도요금

완도 래속선
[1시간40분 소요]
37,000원

목포 크루즈
[4시간20분 소요]
30,000원

광주-완도-제주항-완도-광주 체크 : 단체는 문의 후 확정, 완-제 재-완 편도는 문의 바람

- 서해버스출발 : 06:00 광천터미널 내
- 서해버스도착 : 완도 버스터미널까지만 운행됨
- 래 속 선 : 완도 출발 09:00~10:40 / 제주 출발 17:50~19:30
- 소요시간 : 1시간 40분
- 래속선 +서해버스 요금 : 편도 37,000원(항만세 포함 요금, 추가요금 없음)

광주-목포-제주항-목포-광주 체크 : 단체 불가, 함인율 및 함인 대상자등 문의 바람

- 서해버스출발 : 06:40 광천터미널 건너편 e-편한세상 앞
- 서해버스도착 : 목포 국제항 여객선 터미널 앞
- 크 루즈 : 목포 출발 09:00~13:20 / 제주 출발 17:00~21:30
- 소요시간 : 4시간 20분
- 크루즈 +서해버스 요금 : 편도 30,000원(항만세 포함 요금, 추가요금 없음)

한일카웨이 대리점, 씨월드고속웨이 대리점
남해고속 장흥해운 취급점
제주배닷컴_www.jejube.com

NAVER 제주배닷컴 검색
여행 상담 ☎ 1644-2261

제주여행 참가자분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제주특산물 제공
- 경품 추첨을 통해 가전제품 등 푸짐한 경품 제공 (총 참가자200명 이상시)